

# 명품 '보성키위' 육성 프로젝트 스타트

## 군, 재배 면적 229ha 전국 최대 주산지 국제 경쟁력 높여 믿고 찾을 수 있게 육성

전국 최대의 키위 산지인 보성군은 10월 보성키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명품 보성키위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키위 최대 주산지 보성군의 키위 재배 면적은 229ha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성군은 금년 3월부터 시설 현대화 및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해 전문성을 높이고, 10월에는 국제 농업 박람회에 참가해 보성키위의 날 행사를 운영해 대한민국을 넘어 보성

키위의 세계화의 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최고품질 브랜드 개발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을 발굴해 보성 키위 농업의 자원을 넓히고 법인 단일화로 엄격한 품질 관리를 가능케 하는 등 최고품질의 보성키위를 육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품 키위 육성을 위한 보성군의 노력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농촌진흥청과 보성키위 경쟁력

향상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해 2년 동안 10여억 원을 투자해 최고품질 키위단지를 조성하면서 국내산 키위 품질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

또한,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위 결실안정을 위해 꽃가루 활력검사 서비스를 재배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재배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고의 키위 주산지의 명성을 얻었다.

보성군은 국내 최대 키위 산지에 걸맞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키위 영농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성키위 브랜드를 알리고, 대외 이미지를 향상을 위해 SNS 홍보단을 자체 운영하여 홍보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성 대

표 특산품인 보성키위의 대내외적 이미지 향상을 위해 품질유지와 소비자와 맞춤형 브랜드 개발을 통해 외국산에 대응하고 키위가 보성의 대표 특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명품 보성 키위는 10월 중순부터 수확해 맛볼 수 있다. 키위는 미국 식품영양학회 선정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비타민C의 경우 오렌지의 2배, 사과와 17배를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작용, 변비 해소, 임산부 빈혈 예방 등 영양학적 가치가 매우 높아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과일이다.

보성=안규일 기자



## 광양시 생강 가공상품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광양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술보급과 회의실에서 '생강 가공상품 레시피 개발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생강 가공 표준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농식품·환경연구센터(대표 나혜진)와 생강 가공상품 레시피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5월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생강연구회, 광양농부영농조합법인, 가공분야 신지식농업인 등 다양한 농업 현장에 있는 농업인, 전문가가 참석해 중간보고회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반영 결과를 평가했으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가공상품 생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이용해 생강차(집출차), 다진생강, 편강과 광양시 대표 생강 가공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박종수 미래농업팀장은 "최근 광양시 대표 특산물인 매실 가격 하락과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업현장이 침체되어 생산위주의 농업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으로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며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 중인 생강에 대해 가공, 유통, 기술지원 등 전 분야에 걸친 전문적인 지원으로 광양 생강이 농가소득 증대 작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만든다

순천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근거해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진행 절차에 들어갔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공모'는 오는 9월 2일까지 60일간 공개 모집한다.

후보지는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찬성과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동의를 받은 지역이 신청가능하다.

희망 지역에서는 공고일 기준 예상 부지경계로부터 300m내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서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하고 해당 읍?동사무소를 경유해 시청 청소자원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순천시는 이번 공모와 관련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공모기간 동안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처리시설 사찰을 비롯해 사업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신규시설의 예상규모는 매립시설 조성면적 5000㎡, 소각시설 일일 200톤, 재활용선별시설 일일 60톤 내외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고흥군 드론 우수인재 양성 노력 빛나

### '2019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 1위 차지



고흥군은 드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군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가 서울 무역전시 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 '2019 고졸성공취업대박람회'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전국 최초로 2017년도 신설된 고흥산업과학고 드론산업과를 전국적인 우수고교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발전기금과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고흥산업과학고는 최첨단 드론 장비 구축 및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3년 연속 전국 각지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드론 교육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이다.

고흥=한윤섭 기자

드론산업과 학생들은 3년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항공촬영 및 기체정비에 관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향후 드론 운영기관 등 여러 방면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내년 초에 첫 배출할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내 드론 유망기업에서 채용 관련 취업 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군은 2018년도 5천만원 지원했던 교육발전기금을 올해 1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제공에 도움을 주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증 취득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 5월에도 우주항공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한 드론 체험전에서 드론산업과 학생을 자원봉사 인력으로 채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드론 체험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흥의 드론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과학고와 함께 다양한 드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박진호 기자

## 곡성군, 교통안전 캠페인 눈길

###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교통안전 문화 정착 당부



곡성군은 지난 8일 제280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곡성경찰서, 곡성119 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등 사회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읍주유전 근절, 안전벨트 착용, 이륜차 안전모 착용, 불법주정차 금지, 양보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집중 홍보하며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수칙, 약물오남용 예방에 유의하도록 주민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곡성군에서는 김선호 부군

수가 참여해 교통안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김선호 부군은 "법과 시스템을 통한 사고 감축에는 한계가 있기에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의식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연을 개최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청년밴드 두리두밤은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버스킹을 통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교통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한편 곡성군은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기와 계절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7월 중에는 교통사고 발생 감축을 위해 11개 읍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기도 하다.

곡성=김광휘 기자

## 구례군 농촌지도자회 귀농인과 멘토링 추진

구례군은 농촌지도자 구례군연합회가 지난 9일 산동면 황도유황제조 사업장에서 농촌지도자 구례군연합회원과 귀농귀촌협의회원 62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천연살충제인 황도유황조제 시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가진 이번 시연회는 친환경농법에 관심이 많은

귀농인과 농촌지도자회원에게 황도유황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작물별 안전한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과 농사일에 서 잠시 벗어나 화합을 위한 씨래시킴의 자리를 가졌다.

귀농인들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귀농인 멘토링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농사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항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